

# 성격강점과 행복의 관계: 초·중·고등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sup>†</sup>

김 지 영<sup>‡</sup>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고등학생 집단에 따른 성격강점의 양상을 비교하고, 성격강점과 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52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용 성격강점검사와 행복척도를 실시하였으며, 성격강점의 순위점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활력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지혜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낙관성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고등학생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용감성, 끈기, 활력, 책임감, 종교성 점수가 낮았다. 행복 점수는 초등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세 집단에서 24개 성격강점은 행복 점수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행복은 낙관성과 관대성이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중학생의 행복은 낙관성과 자기조절이, 고등학생의 행복은 낙관성과 감사가 행복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및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격강점, 행복, 청소년

---

<sup>†</sup> 본 논문의 일부 내용은 한국건강심리학회 주최 2016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지영, (01133) 서울 강북구 술매로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Tel: 02-944-5036, E-mail: morrie@iscu.ac.kr

개인의 성격강점은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긍정심리학의 중심적인 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성격강점은 성숙한 인간 발달 및 사회 안녕의 토대라고 볼 수 있다(Park & Peterson, 2006). Peterson과 Seligman(2004)은 인간의 긍정적 성품을 성격강점 및 덕목으로 체계화하였는데, 덕목(virtue)이 범문화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지닌, 비교적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성격강점(character strengths)은 상황에 걸쳐 일관된 행동으로 드러나는 관찰가능한 특질로 정의된다. 상기 연구자들은 고대 전통문화(중국의 유교와 도교, 남아시아의 힌두교와 불교, 서구의 아테네 철학,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문헌을 중심으로 6개의 핵심 덕목을 추출하였으며, 10가지 엄격한 기준(보편성, 행복 공헌도, 도덕성, 타인에의 영향, 반대말의 부정성, 측정가능성, 특수성, 모범의 존재, 결핍자의 존재, 풍습과 제도)에 근거하여 24개 하위강점을 선정하였다. 이로써 6개의 상위덕목(the High six)과 24개의 성격강점으로 구성된 VIA 분류체계(Values-in-Action Classification of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가 구축되었다.

또한 24개의 성격강점을 평가하기 위한 자기보고형 검사인 VIA 강점척도가 개발되었으며(Peterson & Seligman, 2004), 10~27세 청소년에게 시행될 수 있는 청소년용 검사(VIA-Youth)도 개발되었다(Park & Peterson, 2006). 국내에서도 VIA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청소년 개인의 긍정적 성품과 성격강점을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Character Strengths Test for Adolescents: CST-A)가 개발되었다(권석만, 김지영, 하승수, 2012). 성인용과 비교해볼 때, 성격강점의 명칭과 문항이 청소년에게 보다 친숙한 용어로 수정되었

으며 문항수도 조정되었다.

VIA 분류체계는 문자와 제도를 갖춘 전통적인 문화권을 대상으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Dahlsgaard, Peterson, & Seligman, 2005), 소수 문화권이나 문자가 없는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Biswas-Diener(2006)는 아프리카 원주민인 마사이족(Masai)과 에스키모인 이누잇족(Inuit)을 대상으로 24개의 성격강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마사이족과 이누잇족 응답자들도 24개 성격강점의 존재와 중요성 및 바람직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성별에 따른 성격강점의 적합성은 문화권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예컨대 이누잇족은 남성에게 자기조절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고, 여성에게는 이타성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마사이족의 경우 자기조절은 여성에게 더 적합한 강점으로 지목되었으며, 남성에게는 진실성과 공정성 및 리더십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요컨대, VIA 분류체계는 소수인종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화권에 편재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인간의 긍정 특질을 분류하기 위한 시도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가장 중요하게는 특정 덕목(6개 상위덕목)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Dahlsgaard et al., 2005). 또한 VIA 분류체계는 인간의 강점과 덕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이론적 체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권석만, 2011).

개인의 긍정적 성품이자 성격강점은 단일한 형

태가 아니라, 여러 긍정 특질들의 집합체(family of positive traits)라 할 수 있다(Park & Peterson, 2009). 따라서 개인의 긍정적 성품은 여러 강점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프로파일의 형태로 가장 잘 기술된다(Walker & Pitts, 1998). 이에 VIA 분류체계를 적용한 검사들은 각 응답자에게 24개 성격강점의 개인내 점수(ipsative scores) 또는 순위점수(rank order scores)를 제공하며, 상위 5순위의 강점을 대표강점(signature strengths)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표강점은 개인의 속성을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강점으로서, 누구나 2~5개의 대표강점을 지니고 있다(Seligman, 2002). 개인의 핵심적인 대표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은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등 정신건강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김지영, 2015; Gander, Proyer, Ruch, & Wyss, 2013; 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VIA 분류체계가 구축된 이후에, 문화나 성별, 연령에 따른 성격강점의 양상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먼저 54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Park, Peterson, & Seligman, 2006)에서, 미국의 상위 5개 강점은 친절성, 공정성, 진실성, 감사, 개방성이었으며, 하위 5개 강점은 영성, 활력, 신중성, 겸손, 자기조절로 나타났다. 강점순위에 대한 국가 간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상관계수도 매우 높게 나타난 바( $\rho=.73 \sim .99$ ), 국가별 문화, 종교, 경제적 수준 등이 다르더라도 성격강점의 양상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75개국의 성격강점 양상을 분석한 연구(McGrath, 2014)에서도, 국가 간 강점의 유사성이

재입증되었다. 미국의 상위 5개 강점은 진실성, 공정성, 친절성, 개방성, 호기심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74개국의 상위 5개 강점(공정성, 개방성, 진실성, 호기심, 친절성)과 순서는 다르지만 동일한 결과였다. 75개국의 하위 5개 강점은 자기조절, 겸손, 신중성, 영성, 활력이었지만, 이 중 영성은 인도네시아, 케냐, 파키스탄에서 상위 5개 강점으로 나타나, 영성이 상기 국가에서는 핵심적인 덕목이라는 점이 시사되었다.

일본과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4개 성격강점의 순위를 비교한 연구(Shimai, Otake, Park, Peterson, & Seligman, 2006)에서도 순위점수 간 상관관계수가 높게 나타난 바( $\rho=.70$ ), 두 나라 대학생들의 강점 양상이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대학생은 친절성, 사랑, 유머감각, 진실성, 감사의 순서로 점수가 높았으며, 일본 대학생은 감사, 친절성, 공정성, 사랑, 낙관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의 성격강점은 미국 대학생( $\rho=.56$ )보다 일본 대학생( $\rho=.75$ )과 더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임영진, 2010). 이 연구에서 국내 대학생의 상위 5순위 강점은 사랑, 낙관성, 친절성, 감사, 유머감각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차에 따른 강점 순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창의성, 개방성, 지혜, 용기, 자기조절의 순위가 높은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사랑, 친절성, 시민의식, 심미안, 감사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성인 또는 대학생에 비해 청소년의 성격강점 양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미국의 12-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Park & Peterson, 2006)에서, 유머감각, 감사,

책임감, 창의성, 사랑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신중성, 자기조절, 관대성, 감상력, 진실성의 점수는 낮았다. 상기 연구자들은 성인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낙관성, 시민의식, 활력이 보다 많으며, 성인은 감상력, 진실성, 리더십, 개방성이 비교적 많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미국의 성인과 청소년은 강점 순위에 있어 대체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지만, 미국 성인과 다른 나라 성인 간 상관관계수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것이어서, 발달 단계에 따라 성격강점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국내의 경우, 중학생은 사랑, 낙관성, 감사, 유머감각, 호기심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사랑, 낙관성, 감사, 이타성, 호기심의 평균점수가 높았다(권석만 외, 2012).

선행연구에서 국내 청소년의 성격강점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초·중·고등학교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연구는 드물었으며, 순위점수를 사용한 연구는 전무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격강점 연구에서 순위점수 사용이 유용한데, 그 이유는 연령이 낮을수록 강점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중심적이어서, 사회 비교 정보를 사용해서 자기를 평가하기가 어렵다(Bear, Minke, Griffin, & Deemer, 1998). 이에 아동·청소년의 높은 평균점수를 해석할 때에는 주의가 요망된다. 제한적이거나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 개인내 비교점수인 순위점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 연령, 성별에 따른 성격강점의 양상을 비교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성격강점의 순위점수를 사용하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격강점 순위점수를

산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성격강점은 인간의 긍정 성품이자 덕성으로서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동시에, 개인의 행복과 자기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성격강점과 행복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입증되어 왔다. 성격강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Park, Peterson, & Seligman, 2004a)에서, 낙관성과 활력, 사랑, 감사, 호기심은 삶의 만족도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24개 성격강점은 모두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과 성격강점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Shimai et al., 2006)에서도 활력, 낙관성, 호기심, 감사가 주관적 행복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생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관찰되었는데, 낙관성과 감사, 활력, 사랑이 삶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임영진, 2010).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강점과 삶의 만족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김지영, 2014)에서, 삶의 만족도와 상관이 가장 높은 강점은 감사, 낙관성, 활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임영진, 2010; Park et al., 2004a)와 일치하는 결과로, 이에 대해 선행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감사는 과거와 행복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활력은 지금, 여기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낙관성은 미래와 행복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성격에 대한 만족도와 가장 밀접히 관련된 강점은 정서지능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끈기,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사랑,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만족도는 낙관성과 가장 밀접히 관

련되었다.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개방성, 끈기, 자기조절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24개 성격강점의 평균점수가 대체로 높았으며, 특히 활력, 감사, 낙관성, 영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Park & Peterson, 2006)에서도, 삶의 만족도는 낙관성, 사랑, 감사, 활력과 밀접히 관련된 반면, 학교 성적은 끈기, 진실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정신병리의 경우, 낙관성, 활력, 리더십은 낮은 내재화 문제와 관련되었고, 끈기, 진실성, 신중성, 사랑은 낮은 외현화 문제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성격강점이 주관적 안녕을 실제로 예측하는지를 살펴본 연구(Gillham et al., 2011)에서는, 고등학생의 친절성과 책임감(협동심)이 1년 후 우울 증상의 감소를 예측하였으며, 사랑은 삶의 만족도 증가를 예측하였다. 청소년기는 성장이 급증하는 단계로서 성격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발달에 성격강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된 바, 국내 청소년의 성격강점을 확인하는 본 연구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단축형 강점검사를 실시한 연구에서는, 활력, 감사, 희망, 사랑이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두리, 2011). 하지만 이 연구를 포함한 국내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는 강점별 2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설문지를 사용하거나 성인용 검사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연구 결과들과 함께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성격강점 순

위점수를 사용하여 발달단계별 성격강점의 프로파일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의 비교를 위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청소년용 성격강점검사를 실시하여, 학교 및 성별에 따른 성격강점의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학교별 성격강점과 행복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 방법

###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 1곳(5학년), 중학교 2곳(2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2곳(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무응답 또는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522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초등학생(5학년)은 243명(남 127명, 여 116명), 중학생(2학년)은 456명(남 294명, 여 162명), 고등학생(2학년)은 823명(남 401명, 여 422명)이었다.

### 측정도구

**성격강점검사-청소년용(Character Strengths Test for Adolescents: CST-A).** 청소년 개인의 긍정적 성품과 강점을 측정하기 위해 권석만 등(2012)이 개발하고 표준화한 자기보고형 검사로서, Peterson과 Seligman(2004)이 제시한 VIA 분류체계(Values in Action Classification of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에 따라 6개의 핵심덕목과 24개의 하위강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지혜 및 지식 덕목에는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가 포함되며, 인간에 덕목에는 사랑, 이타성, 사회지능이, 용기 덕목에는 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이, 절제 덕목에는 관대성,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이, 정의 덕목에는 책임감, 공정성, 리더십이, 초월 덕목에는 감상력, 감사, 낙관성, 유머 감각, 종교성이 포함된다. 총 24개의 성격강점 척도는 각각 7개 문항으로 측정되고, 참여자에 의해 Likert형 4점 척도(0='전혀 아니다', 3='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24개 하위척도의 점수범위는 모두 0~21점이다. 검사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공정성(.58)을 제외하고 모두 .70~.87의 범위였으며,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67~.88이었다.

**주관적 행복 척도.**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권석만 등(2012)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이다. 총 7문항으로서 Likert 4점 척도(0='전혀 아니다', 3='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4이었고,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73이었다.

###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개인별 성격강점의 순위변수를 생성한 뒤, 각 강점의 순위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집단에 따른 대표강점 확인을 위해 집단별 순위점수 상위 5순위에 해당되는 5개 강점을 선정하고, 추가적으로 하위 5순위에 해당되는 강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집단별 성격강점의 순위점수 간 상관분석을 위해 Spearman의 등위상관계수를 구하고, 상

관계수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Fisher의 Z점수로 변환하여 검증하였다. 집단에 따른 성격강점 순위점수 및 행복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고, 집단 간 다중비교를 위해 Scheffé를 적용한 사후검정(post-hoc test)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격강점과 행복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24개 성격강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선택법(stepwise selection method)을 사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공차한계(tolerance)는 1에 가깝고 분산팽창계수(VIF)는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결 과

### 학교 및 성별에 따른 성격강점과 행복 비교분석

성격강점은 개인 간 비교보다 개인 내 비교가 주된 목적이므로, 24개 성격강점이 개인 내에서 갖는 순위점수(ipsative score)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각 성격강점별 7개 문항 평정치의 합산 점수(0~21점)를 1위부터 24위까지 순위를 매기는데, 대표강점은 1위부터 5위까지의 강점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강점별 순위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Park et al., 2004a)을 사용함으로써, 집단에 따른 강점의 상대적인 순위를 비교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상위 5순위 성격강점은 사랑(3.23), 낙관성(3.42), 감사(4.09), 활력(4.70), 호기심(4.77)이었고, 하위 5순위 성격강점은 종교성

(8.77), 감상력(7.01), 용감성(6.93), 지혜(6.91), 관대성(6.83)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상위 5순위 성격강점은 사랑(3.06), 감사(4.19), 낙관성(4.41), 이타성(4.74), 호기심(5.03)이었고, 하위 5순위 성격강점은 종교성(8.98), 감상력(7.63), 용감성(6.93), 리더십(6.86), 끈기(6.75)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상위 5순위 성격강점은 사랑(3.23), 낙관성(3.81), 감사(4.45), 이타성(4.94), 호기심(5.00)이었고, 하위 5순위 성격강점은 종교성(9.67), 용감성(7.67), 끈기(7.45), 감상력(7.24), 리더십(7.17)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대표강점을 확인한 결과, 남학생의 상위 5순위 성격강점은 사랑(3.36), 낙관성(3.90), 감사(4.35), 호기심(4.87), 개방성(4.95)이었다. 여학생은 사랑(2.97), 낙관성(3.95), 감사(4.34), 이타성(4.60), 호기심(5.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성격강점 순위점수 간 Spearman 상관계수는 .88( $p < .001$ ),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 상관계수는 .86( $p < .001$ ),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상관계수는 .96( $p < .001$ )이었다. 상관계수들 간 차이가 유의한지를 검증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상관계수가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상관계수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z = 2.34, p < .05$ .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격강점 순위점수 간 Spearman 상관계수는 .90( $p < .001$ )으로 나타났다.

학교 및 성별에 따른 성격강점의 순위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덕목별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강점들을 제시하자면, 지식 덕목의 경우 지혜가 학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F(2, 1517) = 6.45, p < .001$ ,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순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과 개방성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F(1, 1518) = 12.28, p < .001$ ;  $F(1, 1518) = 56.25, p < .001$ ,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순위를 보였다.

인간에 덕목의 경우, 학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한편, 사랑과 이타성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F(21, 1518) = 13.48, p < .001$ ;  $F(1, 1518) = 25.57, p < .001$ ,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순위를 보였다.

용기 덕목의 경우, 용감성과 끈기, 활력이 모두 학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2, 1517) = 13.01, p < .001$ ;  $F(2, 1517) = 23.17, p < .001$ ;  $F(2, 1517) = 9.55, p < .001$ .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용감성, 끈기, 활력 순위가 유의미하게 하락하였다. 용감성과 끈기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F(1, 1518) = 23.98, p < .001$ ;  $F(1, 1518) = 36.85, p < .001$ ,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순위를 보였다.

절제 덕목의 경우, 학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한편, 관대성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F(1, 1518) = 19.23, p < .001$ ,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순위를 보였다.

정의 덕목의 경우, 책임감이 학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F(2, 1517) = 8.99, p < .001$ , 사후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순위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F(1, 1518) = 14.02, p < .001$ ,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다.

초월 덕목의 경우, 낙관성과 종교성이 학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2, 1517) = 11.87, p < .001$ ;  $F(2, 1517) = 10.93, p < .001$ . 중학생의 낙관

성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하락하였으며, 고등학생의 종교성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감상력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F(1, 1518)=87.12, p<.001$ , 여학생이 남학생의 순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 및 성별에 따른 행복의 평균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행복은 학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F(2, 1517)=47.60, p<.001$ ,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 학교별 성격강점과 행복 간의 상관분석 및 회귀 분석

표 1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행복은 24개 성격강점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22\sim.65$ . 가장 큰 상관계수는 낙관성( $r=.65, p<.001$ )이었으며, 감사( $r=.56, p<.001$ ), 관대성( $r=.56, p<.001$ ), 활력( $r=.55, p<.001$ ), 자기조절( $r=.54, p<.001$ )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낙관성과 관대성이 행복의 전체 변량 중 47.9%를 설명하였으며,  $F(1,240)=110.25, p<.001$ , 이 때 관대성은 행복 변량을 5.3% 추가로 설명하였다. 행복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낙관성( $\beta=.49, p<.001$ )과 관대성( $\beta=.28, p<.001$ )은 각각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학교별 성격강점과 행복점수 간의 상관계수

	초등학교 행복점수 ( <i>n</i> =243)	중학교 행복점수 ( <i>n</i> =456)	고등학교 행복점수 ( <i>n</i> =823)
창의성	.37***	.34***	.33***
호기심	.50***	.47***	.44***
개방성	.45***	.40***	.30***
학구열	.39***	.39***	.28***
지혜	.47***	.48***	.41***
사랑	.52***	.48***	.43***
이타성	.37***	.42***	.33***
사회지능	.52***	.43***	.42***
용감성	.41***	.47***	.36***
끈기	.46***	.50***	.39***
진실성	.49***	.41***	.36***
활력	.55***	.54***	.51***
관대성	.56***	.45***	.32***
겸손	.43***	.30***	.19***
신중성	.53***	.43***	.37***
자기조절	.54***	.47***	.35***
책임감	.53***	.49***	.42***
공정성	.31***	.22***	.19***
리더십	.41***	.49***	.40***
감상력	.41***	.34***	.23***
감사	.56***	.58***	.52***
낙관성	.65***	.64***	.65***
유머감각	.48***	.39***	.44***
종교성	.17**	.19***	.19***

\*\* $p<.01$ , \*\*\* $p<.001$ .

중학생의 행복은 24개 성격강점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19\sim.64$ . 가장 큰 상관계수는 낙관성( $r=.64, p<.001$ )이었으며, 감사( $r=.58, p<.001$ ), 활력( $r=.54, p<.001$ ), 끈기( $r=.50, p<.001$ ), 책임감( $r=.49, p<.001$ )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낙관성과 자기조절이 행복의 전체 변량 중 45%를 설명하였으며,  $F(1,453)=190.10, p<.001$ , 이 때 자기조절은 행복 변량을



4.7% 추가로 설명하였다. 행복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낙관성( $\beta=.54, p<.001$ )과 자기조절( $\beta=.24, p<.001$ )은 각각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행복은 24개 성격강점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19\sim.65$ . 가장 큰 상관계수는 낙관성( $r=.65, p<.001$ )이었으며, 감사( $r=.52, p<.001$ ), 활력( $r=.51, p<.001$ ), 호기심( $r=.44, p<.001$ ), 유머감각( $r=.44, p<.001$ )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낙관성과 감사가 행복의 전체 변량 중 45%를 설명하였으며,  $F(1,820)=334.08, p<.001$ , 이 때 감사는 행복 변량을 2.9% 추가로 설명하였다. 행복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낙관성( $\beta=.53, p<.001$ )과 감사( $\beta=.21, p<.001$ )는 각각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고등학생 집단에 따른 성격강점의 양상을 비교하고, 성격강점과 주관적 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용 성격강점검사와 행복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집단별 성격강점의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성격강점의 개인내 점수인 순위 점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상위 5순위 강점 및 하위 5순위 강점을 각각 확인하여 비교하였으며, 집단별 성격강점 순위점수 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24개 성격강점과 행복 점수 간의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의 상위 5개 강점 중 4개는 사랑, 낙관성, 감사, 호기심으

로 나타났으며, 하위 5개 강점 중 3개는 종교성, 감상력, 용감성으로 일치하였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상위 5개 강점(사랑, 낙관성, 감사, 호기심, 이타성) 및 하위 5개 강점(종교성, 감상력, 용감성, 리더십, 끈기)은 모두 일치하였으며, 두 집단 간 Spearman 상관계수가 초등학생 집단과의 상관계수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집단의 강점 양상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김지영, 2014)에서 국내 대학생의 대표 강점은 사랑, 낙관성, 친절성(이타성), 감사, 유머감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초·중·고등학생의 대표강점 중 하나였던 호기심이 유머감각으로 대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기심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는 것으로서, 전 생애를 통해서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Giambra, Camp, & Grodsky, 1992).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고등학생까지 상위 5순위에 들었던 호기심이 대학생의 상위 5순위에는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 결과를 청소년의 성격강점 순위점수를 사용한 다른 선행연구(Neto, Neto, & Furnham, 2014)와 비교해본 결과, 상위 5개 강점 중 4개(사랑, 이타성, 활력, 감사)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to 등(2014)의 연구에서는 호기심 대신 진실성이 대표강점에 포함되었다. 한편 75개국 성인의 성격강점 양상과 비교해보았을 때, 상위 5개 강점에서는 호기심과 이타성이 일치하였고, 하위 5개 강점에서는 종교성과 자기조절이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국내 청소년의 성격강점은 75개국 성인보다는 다른 문화권의 청소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국내 성인의 성격강점을 조사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이 따른다. 선행연구 (Park & Peterson, 2006)에서, 미국 성인과 청소년의 성격강점 간 상관관계수가 미국 성인과 다른 나라 성인 간 상관관계수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문화에 따른 강점의 차이보다는 발달단계에 따른 성격강점의 차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즉 성격강점의 양상이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시사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대표강점 중에서 사랑, 감사, 이타성은 긍정적인 관계와 밀접히 관련되며, 낙관성, 활력, 호기심은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특징적인 강점이자 강조되는 덕성이 사회적 관계를 촉진시키고 삶의 희망과 적극성을 고취시키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중·고등학생의 하위 강점에는 종교성, 감상력, 용감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종교적 추구 및 자연이나 예술에 대한 인식 능력, 위험을 감수하고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성향은 추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함양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활력과 행복 점수를 보여, 학년이 낮을수록 생동감과 열정 및 주관적 행복감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시사되었다. Thayer (2001)에 따르면, 연령 증가에 따른 활동수준과 대사의 감소로 인해 활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초등학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낮은 지혜 점수를 보였다. 지혜는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 함양되는 덕성으로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혜가 증가한다는 점이 일부 연구에서 밝

혀졌다(Sternberg, 1990b). 지혜의 이러한 특성이 본 연구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학생은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낙관성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나 학년에 따른 차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바, 중학생만의 독특한 특성과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중학생 집단이 중학교 2학년생인 점으로 미루어볼 때, 중학교 2학년 또래의 청소년들이 보이는 심리적인 상태가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흔히 ‘중2병’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으로서, 자신을 남들보다 훨씬 불행하다고 여기고 어떤 일이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이 이들의 낮은 낙관성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추측해볼 수 있겠다.

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용감성, 끈기, 활력, 책임감, 종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끈기는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끈기의 순위점수가 하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결과는 성인기 중반까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끈기의 속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끈기의 정의 및 관련된 이론에 근거해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고학년일수록 오히려 끈기가 감소되는 이유를 제한적이거나 이해할 수 있다. 끈기란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자발적으로 지속하는 태도를 가리킨다(Peterson & Seligman, 2004).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운 노력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고통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힘이 끈기인 것이다. 여기에는 외부 보상에 상관없이 행위 자체에 만족을 얻는 내재적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Vallerand & Bissonnette, 1992). 즉, 자율적으로

자신의 역량에 적절한 목표를 선택할수록 끈기 있는 행동이 촉진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고학년일수록 자율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목표 추구에 수반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끈기의 발휘와 함양이 제한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끈기 뿐만 아니라 용감성과 활력이 유의하게 낮고, 진실성도 초등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상기 4개의 강점이 포함된 용기 덕목이 고등학생에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기는 목표추구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외부적·내면적 난관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하려는 강인한 성품을 의미하는 바, 역경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게 만든다(Peterson & Seligman, 2004). 고학년일수록 용기와 강인성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해볼 때, 상기 덕목을 함양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책임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책임의식을 뜻한다(Peterson & Seligman, 2004). 입시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고등학교의 현실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협동심, 학업 외에 종교적 활동을 추구하는 것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성별에 따른 성격강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창의성, 개방성, 용감성, 끈기, 관대성, 공정성 및 주관적 행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사랑, 이타성, 감상력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김지영, 2011; 임영진, 2010; Shimai et al., 2006)에서 보고된 성차에 따른 성

격강점의 양상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 24개의 성격강점은 초·중·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선행연구 결과(Park & Peterson, 2006; Park et al., 2004a)와 비슷하게, 낙관성, 감사, 활력 등은 행복과 매우 밀접히 관련된 반면, 종교성은 행복과의 상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자들에 따르면, 활력은 지금, 여기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감사는 과거와 행복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낙관성은 미래와 행복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 종교성(영성)의 경우, 행복과 낮은 상관을 보인 점과 평균점수 자체가 다른 강점에 비해 매우 낮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동·서양의 상이한 종교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Shimai et al., 2006). 일반적으로 서양의 종교관이 동양의 종교관에 비해 현재 쾌락적 시간관(예: 하고 있는 일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과 과거 긍정적 시간관(예: 좋았던 시절의 행복한 추억들을 쉽게 떠올림)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 결과 서양의 영성은 삶의 만족 또는 행복과 더 밀접히 관련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임영진, 2010). 선행연구에서도, 종교성은 미국인의 삶의 만족과 중등도의 상관을 보인 반면, 일본 및 한국 대학생의 삶의 만족과는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초·중·고등학생 모두 낙관성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낙관성은 주관적 안녕을 예측하는 강력한 성격요인으로서, 다른 강점들의 토대가 된다고 주장되기도 했다(Snyder, 1994). 선행연구에서도 행복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강점은 낙관성이었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과거를 긍정적으로 받

아들이고, 현재의 양면성 중에서 밝은 면에 초점을 두며, 미래의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한다. 이처럼 낙관성은 주관적 안녕 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취에 기여하는 성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초등학생은 대인관계에서의 억제적 덕목이라 할 수 있는 관대성(용서)이 행복에 기여하였으며, 중학생은 자신의 생각, 감정, 충동,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조절이 행복에 영향을 미쳤다. 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에게 베풀어진 다른 사람의 수고와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고 그에 보답하려는 성향인 감사가 주관적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 소재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화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무엇보다 초·중·고등학생은 소속 학교의 특성이나 지역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및 학교의 학생들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학교 및 지역 특성을 상위 수준의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아동과 성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 집단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연령집단에 따른 성격강점의 양상을 폭넓게 조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들은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통하여 수집된 것이므로, 자료수집 방법의 다각화를 통하여 자기보고형 질문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측정치로 사용된 성격강점검사는 개인이 지각한 강점의 수준과 프로파일을 제공해주는 바, 특정 강점의 높은 순위점수는 일상생활에서 해당 강점을 많이 발휘한다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에 의한

타인 평정이나 다른 객관적인 측정치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격강점의 순위점수를 사용하여 초·중·고등학생 집단별 성격강점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행복 간의 관계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 성품의 발달모형 및 강점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의 성격강점은 주관적 행복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와 학교생활, 학업성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eber & Ruch, 2012). Seligman (2002)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24개 강점 모두를 함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Peterson(2006) 또한 가능한 많은 성격강점을 계발하고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강점이 꾸준히 함양되지 않을 경우 발달과정에서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기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장면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함양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야말로 강점을 함양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한 연구에서 성격강점 토론, 숙제, 독후감 작성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 강점 중심의 긍정심리학적 개입 프로그램을 1년 이상 20-25회기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즐거움과 참여도, 사회적 기술이 증진되었다(Seligman, Ernst, Gillham, Reivich, & Linkins, 2009). 이처럼 학급 및 학교 수준에서 강점에 기반한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병리 중심의 제한적인 개입에 비해 훨씬 폭넓고 다양한 긍정심리학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

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강점 함양은 여러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심리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석만 (2011). 인간의 긍정적 성품. 서울: 학지사.
- 권석만, 김지영, 하승수 (2012). 성격강점검사 청소년용-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김지영 (2011). 성격강점이 긍정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지영 (2014). 대학생의 성격강점 비교: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미래사회*, 5(1), 79-95.
- 김지영 (2015). 강점개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3), 495-513.
- 원두리 (2001). 성격 강점이 청소년의 안녕감과 적응적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1), 151-167.
- 임영진 (2011). 성격강점과 긍정심리치료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Bear, G. G., Minke, K. M., Griffin, S. M., & Deemer, S. A. (1998). Achievement-related perceptions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normal achievement: Group and developmental differenc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1, 91-104.
- Biswas-Diener, R. (2006). From the equator to the north pole: a study of character strength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293-310.
- Dahlsgaard, K.,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5). Shared virtue: the convergence of valued human strengths across culture and histor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3), 203-213.
- Gander, F., Proyer, R. T., Ruch, W., & Wyss, T. (2013). Strength-based positive interventions: Further evidence for their potential in enhancing well-being and alleviating depress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 1241-1259.
- Giambra, L. M., Camp, C. J., & Grodsky, A. (1992). Curiosity and stimulation seeking across the adult life span: Cross-sectional and 6--8-year longitudinal findings. *Psychology and Aging*, 7, 150-157.
- Gillham, J., Adams-Deutsch, A., Werner, J., Reivich, K., Coulter-Heindl, V., Linkins, M., Winder, B., Peterson, C., Park, N., Abenavoli, R., Contero, A., & Seligman, M. E. P. (2011). Character strengths predict subjective well-being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6(1), 31-44.
- McGrath, R. E. (2014). Character strengths in 75 nations: An updat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0(1), 41-52.
- Neto, J., Neto, F., & Furnham, A. (2014). Gender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of self-rated strengths among youth. *Social Indicator Research*, 118, 315-327.
- Park, N., & Peterson, C. (2006). Moral competence and character strengths among adolescent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 for Youth. *Journal of Adolescence*, 29, 891-909.
- Park, N., & Peterson, C. (2009). Character strengths: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College and Character*, 10(4), 1-10.
-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a).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603-619.
-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6). Character strengths in fifty-four nations and the fifty US state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 118-129.
- Peterson, C. (2006). *A primer in a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 Seligman, M. E. P., Ernst, R. M., Gillham, J., Reivich, K., & Linkins, M. (2009). Positive education: Positive psychology and classroom interventions. *Oxford Review of Education, 35*, 293-311.
- Seligman, M. E. P., Steen, T. A., Park, N.,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60*(5), 410-421.
- Shimai, S., Otake, K.,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6) Convergence of character strengths in American and Japanese young adult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311-322.
- Snyder, C. 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Free Press.
- Stemberg, R. J. (Ed.). (1990b).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ayer, R. E. (2001). *Calm ener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Vallerand, R. J., & Bissonnette, R. (1992). Intrinsic, extrinsic, and amotivational styles as predictors of behavior: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60*, 599-620.
- Walker, L. J., & Pitts, R. C. (1998). Naturalistic conceptions of moral matu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4*(3), 403-419.
- Weber, M., & Ruch, W. (2012). The role of a good character in 12-year-old school children: Do character strengths matter in the classroom? *Child Indicators Research, 5*, 317-334.

원고접수일: 2016년 9월 6일

논문심사일: 2016년 9월 9일

게재결정일: 2016년 10월 12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6. Vol. 21, No. 4, 845 - 859

---

#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Strengths and Happines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i-young Kim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the profiles of character strength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character strengths and happiness. 1522 students from schools in Seoul completed their Character Strengths Tests for Adolescents(CST-A) and Subjective Happiness Scales for Adolescents. It was revealed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 scores of vitality and low scores of wisdom. Middle school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low scores of optimism. High school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low scores of bravery, persistence, vitality, citizenship, and religiousness.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significantly high compared to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orrelations between the 24 character strengths and happiness were all significantly positive. In regression analysis, optimism and forgiv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ptimism and self-regul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optimism and gratitude of high school student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explanation of happines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character strengths, happiness, adolescents